

지역기업 “추석연휴 쉴 틈 없어요”

광양제철소 등 서남권 89개 업체 수출물량·납기일 맞추려 정상 조업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납기일 준수와 수출물량 확보 때문에 올 추석연휴에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삼성광전자 등 광주·전남지역내 대기업 뿐 아니라 첨단·평동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상당수가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회사설립 이후 한번도 오프로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의 경우 6천400여명 전 직원 가운데 3분의 1이 매년 추석연휴에 비직업을 출린다. 이번 추석에도 각 부서별로 4조 3교대 방식을 취해 2천~3천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삼성광전자도 최근 내수와 수출물량이 밀려 냉장고를 비롯해 세탁기·에어컨·청소기 직원들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첫날 정상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서

남권지역 339개 업체 가운데 26.3%인 89개 업체가 추석연휴중 정상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61개 업체보다 28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첨단 38개, 평동 9개, 여수 28개, 광양 8개, 익산과 대불 각 1개, 대불외와 군장외 각 1개 업체로 조사됐다.

첨단산단내 반도체 부품생산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주)는 이번 추석연휴때 납기일, 수출물량 확보 등을 이유로 공장을 부분 가동한다. 또 생물농약을 생산하는 에이엠피(주)도 연속 생산공정 때문에 정상운동을 한다. 평동의국인산단내 (주)진양산업도 자동차부품 재고확보를 위해 정

상가동한다.

전국 27개 국가산단내 가동업체 1천589개 업체 중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업체는 62.5%인 993개 업체였고, 평균 휴무일수는 4.72일이었다.

한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셀러리가 종합원수 300명 미만의 전국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상여금 지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75.3%가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휴일수도 주말을 포함해 5일을 쉬는 업체는 42.0%, 4일 휴무는 20.0%, 6일 이상은 13.3%였다. 납기일 준수를 위해 3일 이하로 축소된 업체도 24.7%에 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5대 거품빼기 “관련 법 개정하라”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대 운동 광주본부가 주최한 ‘5대 거품빼기 법령개정 난타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5대 거품빼기 대상은 기름값·휴대폰·카드수수료·약값·은행금리 등이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일 인출 600만원

자동차기기 이용 한도 이번주 대폭 축소

이번주 후반부터 금융회사 자동차기기(CD/ATM)의 이용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2월이나 13일 관보에 공고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기기를 이용한 1회 인출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1회 이체한도

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차기기에 적용된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 금융 거래가 많은 사이에 따라 자동차기기를 이용한 1회 인출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1회 이체한도

자동차기기 이용 한도

	현행	변경 후
1회 인출한도	100만원	100만원
1일 인출한도	1천만원	600만원
1회 이체한도	1천만원	600만원
1일 이체한도	5천만원	3천만원

금값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금융회사들이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변경내용을 고지하고 전산시스템을 바꾸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별로 준비상황에 따라 변경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월부터 은행들은 단기 체류 외국인에 의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 제시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광뉴스

제조업 4분기 고용사정 ‘맑음’

광주 수출·내수 호전

체감경기 회복세 뚜렷

최근 지역기업들의 체감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광주지역 제조업의 고용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 4·4분기 고용전망지수(EPI, 기준치=100)’를 조사한 결과 ‘106’으로 나타나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연속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기준치를 웃돌면서 경기호전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수출과 내수호전 등으로 생산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고용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분기에 비해 고용증가를 예상한 업체는 전체 응답업체의 20.0%(전분기 16.0%)인 반면,

감소를 예상한 업체는 13.7%(전분기 5.0%)였다.

업종별로는 건설관련업종인 1차건축 및 조립건축(114), 비금속광물업종(108), 자동차·운수장비업종(110), 전기전자업종(105), 기계업종(150) 등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음식료업종(67), 화학·고무·플라스틱업종(80)은 감소가 예상된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106)의 고용은 증가하며, 대기업(75)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응답업체들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시키려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및 세제혜택(39.1%) ▲법이 정착될 때까지 사전적 예방활동 강화(29.3%) ▲직무상과급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비용지원 및 자문기능 확대(17.4%)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기업 하반기 6,260명 채용

인크루트가 현대·기아차, LG(전자·화학분야 제외), SK 등 국내 주요 10개 그룹의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계획을 정하지 못한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그룹이 최대 6천 26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인원을 뽑는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전자 및 화학분야의 채용이 확정되면, 하반기 채용인원은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연구개발, 생산, 일반사무 등의 부문에서 신입사원 700여명의 채용을 진행 중이다. SK그룹도 글로벌 인력 100여명을 포함해 800명 수준에서 하반기 채용을 할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대졸

신입이 15일까지, 해외 MBA와 석·박사는 22일까지다.

LG그룹은 전자와 화학 분야 채용규모가 미정인 가운데, LG필립스LCD가 250~300명, LG CNS는 200명 등 모두 870~960명을 뽑을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다음달 초 채용을 시작할 예정으로 채용 규모가 700~1천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다음달 초 500명을 뽑을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하반기에 모두 600명을 채용하는데 모집시키는 각 계열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 7월 모두 500명 수준의 하반기 공채를 진행했으며, 두산그룹은 신입사원 600명을 뽑을 예정으로 오는 16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광뉴스

전남농협도 47명 뽑아 이달 14~18일 접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 직원 47명을 신규 채용한다. 접수일자는 오는 14~18일이다.

이번 채용은 전남지역본부가 주관 해 시·군 단위별(품목농협 및 축협은 조합단위)로 채용하는데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채용단위 지역 연구자 중

에서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전남관내 지역 농·축협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10일 전남농협 홈페이지(http://jeonnam.nonghyup.com)를 통해 공고하며, 응시 지원서 접수 등 채용업무는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황길주 회원지원팀장은 “이번 신규직원 채용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에 초점을 뒀으며,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인터넷 접수를 통한 공개채용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출입물품 등 밀수 단속 강화할 것

신임 김 두 기 광주본부세관장



“세관의 전통적인 임무인 수출입물품 통관, 징세, 밀수단속업무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마약 및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취임하는 김두기(56) 제 28대 광주본부세관장은 “특히 지금은 한미FTA 등 주변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세관행정을 당부했다.

김 세관장은 또 ▲동반자 정신 ▲명예·금지 ▲변화·혁신 ▲세

계 최고라는 관세청의 4 가지 핵심가치가 광주세관의 조직문화로 깊이 뿌리내리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추진해나간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교과육사를 거쳐 81년 행정사무관으로 특채된 김 세관장은 관세청 총무과장·서울세관 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인주 여사와 1남3녀를 두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

중흥건설·학림건설 공정부, 시정 명령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0일자로 중흥건설과 학림건설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대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수영장 타일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위탁준위 지난해 11월 인수한후에도 하도급대금중 7천175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학림건설도 구례 광의지구 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장치 설치공사 과정에서 공사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7천58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년복리정기예금 연수익을 5.85%(확정금리)

업조타운 1층(업원 안)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상업저축은행

기쁨과 행복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워갤러리 秋 특가판매

모디워갤러리 광주점

062-385-3001-2

062-385-3001-3

S the 1 요리학원 대특강 개강

● 7월 7일 (carving) 과일조각장식·스시트빙수강생모집 ●

맛과 멋이 살아있는 행복한 요리교실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최: 대한주요리협회, 대한요리학회, 대한요리연구소, 대한요리문화재단

주최: 대한주요리협회, 대한요리학회, 대한요리연구소, 대한요리문화재단

(062)385-0723-4